

불운에도 웃은 팻, 마지막에 진짜 웃다



넥센 이정후 손가락 골절 스프링캠프 제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이정후(19)가 훈련 도중 손가락을 다쳐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제외됐다. 넥센 구단은 "지난 20일 웨이트 훈련 중 담배에 손가락을 다친 이정후는 부상 당일 1차 검진에서 손가락 골절 판정을 받았다. 26일 2차 검진에서 수술 없이 손가락 깎는 상태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후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스프링캠프 대신 국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할 예정이다. 넥센 구단은 "내년 2월 중순부터 기술 훈련이 가능하며, 2018시즌 시범경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범(47) 야구대표팀 코치의 아들로 먼저 이름을 알린 이정후는 지난해 6월 넥센으로부터 1차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뛰어 들었다.

프로 첫해인 이번 시즌 이정후는 정규시즌 전 경기(1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4, 179안타, 2홈런, 47타점, 111득점으로 천재성을 드러냈다. 덕분에 아버지도 받지 못했던 KBO리그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정규시즌 종료 후에는 아시아프로 야구 챔피언십(APBC) 대표로 뽑혀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부자 동반 대표팀 승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정후의 활약은 대표팀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대만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1-0 승리를 이끈 결승 3루타를 터뜨렸다.

이번 겨울 웨이트 훈련을 통한 장타력 보강을 목표로 했던 이정후는 그러나 훈련 도중 다치면서 2018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연합뉴스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12> 팻

구속·변화구 스프링캠프부터 기대 한몸에 불펜 난조에 개막전 승리 날아가도 "괜찮다" 전반기 부진 딛고 KS 3차전 MVP '반전'

■ 팻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평균자책점	승	패	이닝	자책점	피안타	피홈런	볼넷	탈삼진
3~4월	5	3.18	2	1	34	12	39	4	5	25
5월	5	3.00	2	1	30	10	37	4	6	22
6월	5	6.44	1	3	29.1	21	39	3	12	23
7월	5	5.23	0	0	20.2	12	24	4	4	25
8월	5	5.46	2	1	28	17	39	3	9	20
9월이상	5	2.38	2	1	34	9	33	4	3	28
종합	30	4.14	9	7	176	81	211	22	39	143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던 팻이 최후에 웃는자가 됐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헛타와 짝을 이룬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다. 몇 년간 우선 영입 조건으로 꼽던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 컬러에 딱 맞는 밝은 성격, 바로 팻이었다.

팻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합격점을 받았다.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 그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까다로운 공을 던지며 기대감을 높였다. 커브,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등 다양한 공을 구사한 그는 쌀쌀한 날씨에도 147km의 스피드까지 찍으며 힘을 보여줬다.

팻은 본격적인 KBO리그 적응 무대였던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제구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위망업을 끝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무대'는 험난한 불을 알리는 예고편이 되고 말았다.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 시리즈에서 1차전 헛타에 이어 2차전을 책임지게 된 팻은 기대에 맞게 자신의 KBO 데뷔전을 깔끔하게 풀어나갔다. 7회까지 5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

완투까지 내다볼 수 있던 페이스였지만 경기 중간에 내린 비가 복선이었다. 7회말이 시작되자마자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흐름이 끊긴 팻은 2사 만루의 위기에 몰리는 등 7회에만 30개의 공

을 던지면서 진땀을 흘렸다.

7-0의 리드에서 팻의 첫 등판이 마무리됐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9회말 KIA 김광수, 고효준이 흔들리자 긴박하게 한승혁과 임창용이 투입됐지만 점수는 7-1이 됐고, 팻의 승리가 날아갔다. 결과는 KIA의 연장 10회 9-7 승리였다.

잘 던지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던 팻은 "괜찮다. 전체적으로 피칭은 좋았다. 내가 나오는 경기에 팀이 이기는 게 목표다"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괜찮다"며 웃는 날이 많았다.

첫 경기부터 험난했던 팻은 두 번째 등판에서도 5.2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은 했지만 팀의 역전패를 지켜보아야 했다. 세 번

째 등판에서 9회를 모두 책임지고야 한국에서의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었던 팻은 초반 불운에 올랐다.

불운에 고전하던 팻은 이후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4.88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승 5패로 마감했다. 초반의 매서움이 떨어지면서 내년 시즌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팻은 반전을 이뤄냈다.

후반기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보태며 아쉬움을 털어낸 그는 생애 첫 우승의 현장에서 승리투수가 되어 마음껏 웃을 수 있

었다.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로 출격한 팻은 7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9회 나지완의 대타 투런이 터지면서 6-3으로 경기가 끝났고, 팻은 한국시리즈 3차전 데일리 MVP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웃은 팻. 그는 반전쇼를 이루며 내년 시즌에도 헛타, 버나디나와 함께 타이거즈 2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유럽 탑클래스' 5대 리그 26위

메시 1위·호날두 4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5)이 세계 톱클래스 선수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2017년 유럽 5대 리그 축구선수 톱 100'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26위에 올렸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해리 케인을 도우며 급부상한 선수다. 올해 22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며 "손흥민은 한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손흥민이 현지 유력매체나 조사기관이 선정한 '톱 100'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발표한 5대 빅리그 선수 가치 평가에서 69위에 오르기도 했다. 손흥민은 당시 아시아 선수로 유일하게 '톱 100'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웠다.

스카이스포츠 '2017 축구선수 톱 100' 전체 1위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차지했다.

2위는 해리 케인(토트넘), 3위는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4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5위는 크리스티안



에릭센(토트넘)이 올랐다. 드리스 메르티스(나폴리),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사울 니게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뒤를 이었다.

손흥민 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곤살로 이과인(유벤투스)은 27위에 올랐고, 세르히오 아구에로(맨체스터 시티·28위), 필리피 코차뉴(리버풀·30위),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33위), 라힘 스티어링(맨체스터 시티·36위),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40위) 등 경쟁한 선수들이 손흥민의 뒤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박진섭호' 구성 완료

유경렬 수석코치·조성용 필드코치·주용국 골키퍼 코치 선임

프로축구 광주 FC가 '박진섭호'의 구성을 완료했다.

광주는 26일 신임 박진섭 감독과 함께 2018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진으로 유경렬 수석코치, 조성용 필드코치, 주용국 골키퍼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경렬 수석코치는 2003년 프로에 데뷔해 울산 현대와 대구 FC에서 중앙수비수로 뛰면서 10년간 통산 335경기 18득점 7도움을 기록했다. 현역시절 안정적인 수비리딩과 맨마킹, 뛰어난 커버링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한 그는 2006년에는 본프레레 감독의 눈에 띄어 월드컵 최종예선에 나서는 등 A매치 17경기를 소화했다. 2013년 은퇴 후에는 천안시청에서 플레잉코치와 수석코치를 지냈다.

유 수석코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박진섭 감독과 울산의 수비라인을 책임지며 인연을 맺었고, 울산은 2003-2004시즌 리그 최소실점을 기록했다.

풍생고와 고려대를 나온 조성용 코치는 2004년 FC 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광주 상무(현 상주 상무)를 거쳐 김해시청 소속으로 뛰었다. 2013년 대월중학교 코치로 변신한 그는 2015년 선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다.

급하고 출신의 주용국 골키퍼 코치는



광주 FC가 박진섭 감독을 필두로 2018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를 구성했다. 사진 왼쪽부터 주용국 골키퍼 코치, 유경렬 수석코치, 박진섭 감독, 조성용 코치. <광주 FC 제공>

AFC U-19 챔피언십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으며, 경희대 진학 후 유니버시아드 대표(91년), 한일대학축구경쟁전(현 덴소컵) 대표(92년)를 지냈다.

주 코치는 전안 일화 천마에서 신의손과 경쟁을 펼쳤으며, 1996년 수원 삼성에서 뛰기도 했다. 2005년 호남대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주 코치는 총주 협맹과 경주시민축구단을 거쳤다.

광주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코칭스텝

은 모두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베테랑으로 박진섭 감독을 도와 선수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박진섭 호가 K리그 챌린지 무대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구단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이날 선수단을 예비 소집해 선수단 미팅 및 메디컬 테스트, 기초체력 훈련 등을 실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기록법 배워요

1월 12~20일 대전·서울서

2018년 KBO 기록강습회가 대전 숭실대학교(1월 12~14일)와 서울 건국대학교(1월 18~20일)에서 개최된다.

야구 공식기록법의 보급과 이해를 통한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록강습회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이후 올해로 37회째를 맞으며, 2016년 부산과 올해 광주에 이어 대전에서 열리는 3번째 지역 강습회다.

KBO 공식 기록원의 강의로 진행되는 기록강습회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식 기록 작성법을 바탕으로 기록 및 경기 규칙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수강신청자에게는 현장에서 실습용 야구 기록지와 'KBO 기록법 & 기록규칙 가이드북'이 교재로 제공된다.

각 강습회 종료일에는 전체 강습과정의 이해도 점검을 위한 기록 실기테스트가 실시되며, 테스트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더불어 성적 우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2018년도 제8기 전문기록원 양성과정 우선 수강자격을 출제 예정이다.

대전, 충청지역의 수강 신청 기간은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건국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신청은 KBO 홈페이지(https://www.koreabaseball.com) 수강신청 접수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